

養鷄家 최대의 財産

건강하고
균일하게
길러진
햇닭



김영환
(친호부회장 전무)

햇닭을 꼭 고르게 키운다는것은 양계가의 최대의 사양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균일하게 키워낸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과 기술 가지고는 그리 쉽지 않다.

표1 계군 평균 체중으로부터의 체중변이

체중 범위	개체%
평균체중 이하	
- 5% 범위의 닭	16%
- 5~15% 범위	24%
-15~25% 범위	8%
-25% 초과	2%
평균체중 이상	
- 5% 범위의 닭	17%
- 5~15% 범위	23%
-15~25% 범위	8%
-25% 초과	2%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실제 양계장을 답사하여 52계군 중 100수씩을 조사하여 얻은 평균 성적을 보면 평균체중에서 5%

(많거나 적은) 범위안에 드는 닭이 불과 33%, 평균체중에서 15%를 벗어나는 닭이 20%가 되었다. (표1)

이러한 성적이면 매우 균일하게 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계군에서는 18주령 체중이 1.4kg이상 나가는 무거운 닭, 1.1kg를 못 미치는 닭이 전체의 31%나 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계군의 체중을 중간것, 작은것, 큰것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산란능력을 조사해 보았다. 체중이 너무 작거나, 큰것에 속하는 닭은 산란율이 낮았고, 폐사율도 높았다. 그리고 체중이 평균보다 큰 편인 닭들은 적은편의 닭들보다 산란율과 난중이 우수했던 반면에 사료요구율은 많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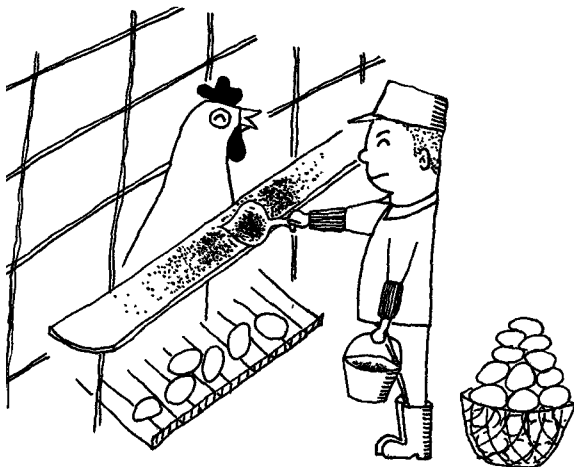
일반적인 수익성을 검토 했는때, 평균체중보다 매우 낮은것과 매우 높은 것들에 속하는 닭들은 수익성도 크게 떨어졌다. (표2 참조)

표2. 체중 분류의 따른 능력의 차이

체중 범위	체중kg	반복당수수	헨데이 산란율	폐사율 %	1 일사료 섭취량gm	난중 gm	72주령 체 중	수익 \$
매우 작은것	1 kg이하	54	55.1%	18.5	104	59	1.55	1.78
작은것	1.08과 1.13	108	64.6	9.6	120	62	1.69	2.18
중간것	1.22와 1.26	108	64.6	7.3	119	62	1.83	2.28
무거운 것	1.35와 1.40	108	64.0	5.7	127	63	2.03	2.25
매우 무거운것	1.49이상	54	62.5	9.9	137	64	2.16	1.68

3 반부 캘리포니아 대학 도널드 벨, 1967.1

고르게 길러진 헛닭은 무엇보다도 성숙이 고르게 되기 때문에, 산란피크가 높다. 초산하는 닭을 한마리 한마리 관찰하여 보면 135일령에 첫알을 낳는 닭이 있는 반면에 190일령이 되어서야 첫알을 낳는 것을 볼수 있다. 만일 이들 닭들이 150일령경에 일제히 초산을 한다고 하면, 170일령에 95%의 산란피크에 도달 할수 있다는 셈이된다.



성숙이 늦어서, 190일령이나 되어서야 초산을 하는 닭이 많으면 결국 초기에 알을 많이 잃는 셈이되며, 한번 잃어버린

산란은 영영 되찾을 길이 없는것이다.

따라서 높은 산란피크를 얻고,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닭을 고르게 성숙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진다.

닭이 균일하다는 기준은 그닭의 평균체중에서 10%내외에 들어가는 닭이 최소한 70%는 되어야 하고, 더욱 바란다면 75~80%는 되는것이 좋겠다.

닭의 균일도를 평가 할때에는 계군의 평균 체중만을 검토하지 말고, 그 품종의 주령별 표준체중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백색산란계의 20주령 (140일령) 표준체중이 1,300그램일때, 1170그램부터 1430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닭이 실제로 계군의 75~80%가 된다면 그닭은 매우 균일하게 길러졌다고 말할수 있겠고, 그 양계가는 매일 금달걀을 하나씩 얻게 될것이다.

병아리 크기의 영향

닭을 층다리지게 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가운데 흔히 무시되어온 부문이 병아리의 크기이다.

예를 들어 32그램 짜리 병아리와 40그램짜리 병아리가 한데 혼합되어 입추되었다고 한다면, 성장해서도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더욱이 급이 급수면적이 적고 기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

초생추때의 20%의 체중차이는 성장해서도 20%의 체중 차이를 낼 것이다. 즉, 1300그램대 1040그램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초생추 일주일간의 관리가 잘못되면 개체간의 체중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1. 초생추 일주일간의 관리

처음 일주일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1) 계사가 너무 추운 경우- 샷갓 밑에만 물려 있고 사료를 먹지 않는다.
- (2) 물통이 적거나, 먹기에 불편한것-물을 못먹으면 사료를 먹지 못한다. 빠다리 육추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 (3) 초생추를 너무 밀사할 경우-경쟁이 치열해지고, 병아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 (4) 첫모이 급여 방법-얼씬 병아리도 앉은 자리에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사료를 물에 버물여 준다. 그외에 충분한 습도의 급여, 23시간 이상의 점등이 병아리를 고르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사양 프로그램의 영향

단백질 원료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단백 사료(예, 대추사료)를 너무 일찍부터 먹이는 것이 닭을 총다리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개 균일한 체구, 좋은 체중의 헛닭을 만들려면 약 2.25파운드(1,020그램)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사양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 0~7주령(49일령) 19% 단백질
유추용사료 약 1.6kg
 - 8~12주령(84일령) 16% 단백질
중추용사료 약 2.0kg
 - 13~산란 1%까지(140일령) 14% 단백질
대추용사료 약 3.2kg
- 위의 사료섭취량은 사료의 에너지함량

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3. 유추용 사료 급여기간의 영향

초생추 사료를 너무 일찍 중추사료로 바꾸는 것도 닭을 총다리지게 하고, 작은 체구의 닭으로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양계가들은 4~6주령까지만 초생추사료를 먹이는데 7주령 혹은 8주령까지는 초생추 사료를 먹이기를 권한다. 특히 어린병아리 때에 과감한 디비킹을 해준 닭은 사료섭취량이 떨어져 성장이 부진하여지기 때문에 초생추사료를 일찍 끊어서는 안될것임. 사실은 0~8주령까지의 기간은 섭취되는 단백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초생추용 사료의 급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이다.

에너지 공급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20주령에 1,270그램 체중으로 길러내는데 총 필요한 에너지량은 18,100~18,500대사 에너지 칼로리이다. 대개 환경온도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수준도 달라지겠지만 초생추 사료는 kg 당2,900ME. 중추용 사료는 2,860ME. 대추용 사료는 2,815ME를 함유하면 무난하다.

닭의 체중측정은 6주령부터 2주에 한번은 하는것이 필요하다.

중측정 결과에 따라 사양관리를 조절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60일령이나 90일령에 가서 체중측정을 시작한다면 너무 작은 닭, 너무 큰 닭의 체중차이가 크게 벌어져 손쓰기가 이미 어려워질지 모른다. 헛닭은 12~13주령(84~91일령)까지는 골격의80%는 발육되어야 한다.

매주 혹은 2주에 한번은 닭의 건강상태를 체크해보도록 한다. 닭이 균일하게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